

개인전 여는 英 조각 거장 데이비드 내시

“나무에도 나름의 캐릭터가 있어요”

예술가는 우리가 사소하게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다.

영국의 조각 거장 데이비드 내시(69)는 이 점에 있어 탁월하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엘니뇨에 의해 쓰러졌거나 일본 산사태로 쓸려간 나무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다.

그가 2007년 이후 두 번째 국내 개인전을 여는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에 가면 전 세계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만날 수 있다. 주목과 호랑가시나무도 있지만 작가가 주로 선호하는 나무는 붉고 큰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삼나무)다.

삼나무는 삼나무대로, 자작나무는 자작나무대로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 결이 강한 너도밤나무는 가로로 잘 잘라지고, 유칼립투스나 삼나무는 세로로 더 잘 쪼개진다.

“나무 무게의 40%는 수분입니다. 수분 전체가 마르는 데는 2년이 걸리죠. 물기가 마르면서 나무가 줄어들고 나무에 균열이 생기고 형태가 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균열이 어디서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작가 활동 초기에는 가공된 나무나 합판을 가지고 작업했다. 재료에 대한 전적인 권한이 조각가인 그에게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는 ‘진짜 나무’들에 관심을 갖게 됐다. 윤리적인 이유로 기후나 질병으로 고사한 나무만을 재료로 사용한다.

“재료가 나를 이끌어 형태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좋아합니다. 균열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휘었으면 그 변형대로 나무의 성격을 그저 따라 갑니다. 저는 나무 본연이 갖고 있는 성격과 캐릭터를 찾지만 하면 되죠.”



삼청로 국제갤러리서 나무의 특징과 결 살린 조각작품 40여점 선보여

작가는 나무의 생로병사를 인간에 비유했다. 나무의 죽음도 인간처럼 다양하다. 태풍 등 사고사도 있고 뿌리가 썩는 질병사도 있다.

“나무의 수명주기는 인간의 수명주기를 닮았어요. 그들은 밤낮으로 성장하고 호흡하며 계절들을 지나며 깨어있거나 잠을 자죠. 나무들은 사진들의 형태를 통해 시간의 이야기를

보여 줍니다.”

그는 반세기가 넘는 자신의 작품활동을 “나무를 향한 헌신이자 열정”이라고 표현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나무 역시 생명에 대한 무상한 진리를 보여 주죠.”

작가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에도 주목한다. 삼나무를 좋아하는 것도 붉은색 때문이며 그 나무의 일부를 일부러 태우기도 하는데, 붉은색과 검은색의 대비를 위해서다. 파랑과 검은색의 대비도 즐긴다. 나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외용으로 작업한 브론즈 세 개를 전시장에서 감별해 내는 것도 관람 포인트다. 전시는 내년 1월 25일까지. (02) 735-8449 이향희 기자